

동화 들려주기와 추후 토의 활동이 유아의 사려성에 미치는 효과

The Effects of Story Telling and Follow-up Discussion Activities on Preschooler's Reflection

경북외국어테크노대학 유아교육과

조 교 수 김 현 아

영남대학교 유아교육과

강 사 석 주 영

영남대학교 가족주거학과

교 수 홍 상 옥

영남대학교 유아교육과

교 수 박 인 전

Dep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Kyungbuk Foreign Language Techno college

professor Kim, Hyun Ah

Dep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Yeungnam Univ.

professor Suk, Ju Yeung

Dept. of Family and Housing Studies, Yeungnam Univ.

professor Hong, Sang Ook

Dep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Yeungnam Univ.

professor Park, In Jeon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story telling and follow-up discussion activities on preschooler's reflection. The 46 subjects attending a kindergarten in D city were randomly assigned to an experimental group or a control group of 23 preschoolers each. Experimental

* 교신저자 : 김현아(E-mail: kimhyunah1@naver.com)

treatments were given twice a week for 6 weeks. Reflection was evaluated by using MFFT(Kagan, 1966). Stories implicating reflection were selected by a group comprised of two experts involved in child education and six kindergarten teachers. Results of the analysis by t-test, ANCOVA and F-test showed that the story telling and follow-up discussion activities were effective for improving preschooler's reflection. That is, the story telling and follow-up discussion activities increased the response time and decreased the rate of error measure by MFFT.

주요어(Key words) : 동화 들려주기(story telling), 추후 토의(follow-up discussion), 유아의 사려성(preschooler's reflection)

1. 서 론

사려성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검토하고 숙고하여 상황의 요구에 맞는 적절한 행동을 할 수 있는 태도를 말한다. 인간은 문제해결 및 정보처리의 과정에 있어서 속도나 정확성의 일정한 경향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특징을 사려성-충동성의 인지양식으로 유형화 할 수 있다. Kagan, Moss와 Siegel(1963)에 의하면 인지양식은 사람들이 각자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방식으로 사물을 지각, 기억, 사고하는 것으로서 외부환경을 받아들이고 조직하여 개념적으로 범주화할 때 개인이 가장 선호하게 되는 경향이라고 정의하였다. Kagan(1966)은 과제를 처리할 때 있어서 속도, 정확성, 신중성, 처리전략 등을 기준으로 하여, 심사숙고하며 느리기는 하지만 정확하게 정보를 처리하는 사람을 사려적인 인지유형으로 분류하였으며 이와 반대로 빠르게 반응하지만 부정확한 결론을 내리는 사람을 충동적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인지양식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차이에 대하여 Kagan은 각 개인이 소속된 사회로부터 요구받게 되는 서로 상반된 행동표준으로 인해 불안을 느끼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 중 하나는 빨리 답하라는 요구이며 다른 하나는 과오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요구이다. 즉 사려적 아동은 과제 해결에 있어서 과오를 범하지 않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유형으로서 문제해결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있어서 불안감 없이 과제해결을 위한 시간과 노력을 기울게 된다. 그러나 사려성이 부족한 충동적인 아동은 문제해결에 대한 자신감이 없으며 이로 인해 불안감을 갖게 되고 이러한 불안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빨리 반응하게 되므로 자연히 부정확한 반응의 빈도가 높게 나타나

게 된다. 다시 말해서 충동성과 같은 사려성이 결핍된 반응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의심이 높으며 이것을 부인하고자하는 아동일수록 강하게 표현된다는 것이다(이은지, 1998).

서영숙, 이재연, 성영혜, 김광웅(1993)에 의하면 자기에 대해 부적절함, 무능함 등의 낮은 가치 평가를 하는 아동은 자신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지 못하며 거부당하는 것에 대한 공포를 갖고 있어 이러한 자신의 약한 자아를 보호하기 위하여 충동적 반응과 같은 방어행동을 통해 빨리 그러한 문제 상황을 벗어나고자 하는 행동을 나타내게 된다고 하였다.

사려성과 충동성의 경향은 아동이 자기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 즉 유혹 저항, 과제인내, 만족지연과 같은 자기통제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사려적인 아동은 상황을 검토하고 심사숙고하여 상황적 요구에 적절한 행동을 취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대안을 두고 타당성을 고려하여 결정을 내리게 되므로 충동적인 아동에 비해 높은 자기통제를 나타내게 된다(강기숙, 이경남, 2001; 이경남, 2001; 이미라, 1999; 허수경, 이경남, 1996; Kanfer & Karoly, 1972; Kendall & Braswell, 1982; Kendall & Wilcox, 1979; Kopp, 1982; Messer, 1976).

또한 충동성과 같은 사려성이 결여된 행동은 사회적인 문제와 공격성과도 관련된다. 충동적 아동은 분노를 통제하지 못하고 부적절한 행동을 그대로 표출하는 경향이 있어 놀이집단에서 공격적이고 부정적인 말을 많이 사용함으로써 또래들로부터 거부당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Carlson, Lahey, Frame, Walker & Hynd, 1987).

이상과 같이 아동의 자아개념, 자기통제, 사회성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려성은 유아기를 통해 발달한다. Messer(1976)에 의하면 사려성은 문제해결의 상황에서 여러 가지 대안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심사숙고함으로써 상황적 요구에 맞는 적절한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으로서 인지발달과 병행하여 발달하며 만 5세경에 뚜렷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허수경과 이경남(1996)도 아동의 만족지연능력을 인지양식유형에 따라 비교한 연구에서 만 3세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는 유아의 만족지연 능력이 만 5세가 되면서 획기적으로 발달하게 되는데 이것은 인지적 요인으로서 지연행동에 대한 책략이 이 시기에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다시 말해 유아는 효과적으로 만족을 지연하기 위하여 욕구좌절에 대처할 수 있는 책략들을 생각해 낼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책략 사용의 전제 조건으로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개인의 인지적 요인인 사려성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사려성 발달을 위한 중재는 유아기를 통해 조기에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며 유아의 인지 발달 측면을 고려하는 접근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한편, 동화는 유아들에게 있어서 발달에 적합할 뿐만 아니라 유아들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사려성의 개념을 제시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 매우 효과적인 매체이다. 동화가 사려성을 증진시키는지에 관한 선행연구는 거의 없으나 동화가 유아의 추론능력, 조망수용 등과 같은 인지적 측면

의 발달에 효과적임을 입증한 연구는 다수 있다(신현옥, 1996; 최윤정, 이기숙, 1999; Trepanier & Romatowski, 1981). 특히 최윤정과 이기숙(1999)은 동화 들려주기와 토의의 방법이 유아의 친사회성의 행동적 측면뿐만 아니라 유아가 보살피고 돕는 행동을 하게 되는 인지과정인 친사회적 추론에까지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였다. 유희정(2002)은 동화를 활용한 갈등해결 교수전략이 만 3세 유아의 또래 간 갈등양상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연구에서, 동화는 유아들에게 이야기 속 주인공들의 눈을 통해 논쟁의 양면을 모두 보여줄 수 있고 창의적으로 갈등을 해결 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고 하였다. 또한 등장인물의 행동을 통해 문제를 파악하고 대안적 해결책을 모색하며 결과를 예측해보는 과정을 간접 경험하게 되고 그러한 해결책의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개념을 정립할 수 있게 된다고 하였다.

이상의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동화 속 등장인물들의 행동들은 유아에게 바람직하고 적절한 행동의 모델로서 유아가 바람직한 행동을 모방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동의 저변에 포함된 동기와 타당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인지적 측면의 효과도 동시에 가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동화 들려주기와 토의 방법을 통해 유아들은 이야기 속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이 인내심이나 충동억제와 같은 사려적 행동을 보이는 것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고 이러한 사려적 행동을 위한 다양한 책략과 사려적 행동이 가져오는 결과에 대한 이해도 가능하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관련하여 Hodges(1995), Lipscomb, Larrieu, McAllister 와 Bregman(1982), McMath(1989) 등은 동화 속의 등장인물들은 유아에게 바람직한 행동의 모델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하였으며, Smyth(1996)는 유아들이 이야기를 통해 간접 경험한 상황은 놀이 등을 통해 실제 상황으로 통합될 수 있고 유아의 말과 행동으로 전환되어 사용되기도 한다고 주장하였다.

Berk와 Winsler(1995)는 이러한 주장을 Vygotsky의 근접발달지대(ZPD)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유아들은 동화를 통하여 모델의 행동을 관찰하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행동의 수행에 있어서 하나의 외적 매개체를 가지게 되며 결국 유아가 실제 능력 이상의 행동을 수행하게 되는데 기여한다고 하였다. 또한 동화 들려주기에 이어 이루어지는 토의 활동은 소집단의 유아들이 교사의 중재와 지원에 따라 수용적인 분위기 속에서 특정의 주제와 내용에 대하여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는 것으로서 동화를 듣고 난 후 동화내용에 대하여 다시 이야기하거나 질문하기, 느낌 이야기하기, 동화 내용을 다르게 꾸며보기 뿐만 아니라 동화에 나온 유아들의 관심을 끄는 동물이나 사물 또는 내용이 하나의 주제가 되어 그에 대한 심층적인 정보를 교환하는 심화활동으로 활용될 수 있다(민옥진, 이윤경, 2001).

최근 사회적으로 유아의 조기발달 및 조기교육을 부추기는 분위기가 만연되어 있어 유아들에게 지적인 과제를 일찍 부여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일부 유아들에 있어서 이러한 조기교육의 역기능으로 과제에 대한 흥미 부족, 주의 산만 및 충동성 등의 행동문제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행동

문제는 유아기뿐만 아니라 아동 및 청소년기의 학업실패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유아기의 충동성, 과제에 대한 인내부족 등의 문제는 사려적으로 행동하는 인지양식의 부재에서 비롯되는 것으로서 동화 들려주기 및 토의와 같은 언어를 매개로하는 성인과의 상징적 상호작용이 인간의 고등정신 기능인 사려적 인지양식을 증진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지금까지 유아의 사려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법에 대한 연구는 사실상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유아의 사려성이 특정의 프로그램을 통해 훈련가능한지에 대한 검증도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유아기 동안 형성되어 이후의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사려성의 발달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동화 들려주기와 추후 토의 활동을 수행하고 그 효과를 검증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이러한 목적에 따라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동화 들려주기와 추후 토의 활동이 유아의 사려성 증진에 효과가 있을 것인가?
 - 1-1. 동화 들려주기와 추후 토의 활동이 유아의 과제에 대한 반응속도 증가에 효과가 있을 것인가?
 - 1-2. 동화 들려주기와 추후 토의 활동이 유아의 과제에 대한 오류수 감소에 효과가 있을 것인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를 위해 대구에 소재한 R유치원의 만 4-5세반 원아 50명을 대상으로 Kagan(1966)의 인지양식검사(MFFT)를 실시하였으며 이들을 연령, 성별, 인지양식 검사의 결과가 비슷한 두 집단으로 나누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으로 임의 배정하였다. 연구대상 유아는 총 50명으로서 실험처치가 진행되는 12회기 동안 3회 이상 결석한 4명의 유아를 제외한 46명의 자료를 최종 결과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을 만 4-5세로 정한 이유는 문제해결 상황에서 여러 가지 대안의 타당성을 고려할 수 있는 사려성이 만 5세경에 뚜렷이 나타나게 된다는 Maccoby(1980), Messer(1976)의 주장에 따라 사려성이 막 싹트기 시작하는 만 4-5세를 대상으로 동화 들려주기와 추후 토의 활동

을 실시함으로써 프로그램의 효과를 보다 분명히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유아의 성별 분포는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 유아의 집단별 특성

집 단	성 별	빈 도	%
실험집단	남	10	43.5
	여	13	56.5
통제집단	남	10	43.5
	여	13	56.5

<표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은 각각 23명으로 동일하였으며 성별에 따른 분포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모두 여아 13명(56.5%), 남아 10명(43.5%)으로 여아가 남아에 비하여 약간 많았다.

동화 들려주기와 추후 토의 활동을 적용하기 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의 동질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사전검사를 토대로 t-test를 실시한 결과는 <표 2>에서 나타난 바와 같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려성의 하위요인인 과제에 대한 반응속도와 오류수에 있어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두 집단이 동질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사전검사를 통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 검증

변인	집단	M(SD)	t값
반응속도	실험	6.57(2.96)	-1.80
	통제	8.42(4.60)	
오류수	실험	2.03(.88)	.46
	통제	1.91(.94)	

2. 연구도구

1) 그림동화책

본 연구에서는 최윤정과 이기숙(1999)이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과 추론을 연구하기 위해 사용한

그림동화의 선정 기준을 참고로 하여 사려성과 충동성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그림동화를 현장 교사 6인의 자문을 구하여 수집하였으며 예비연구에서 사용한 후 가장 적합한 12편을 최종 선택하여 유아교육전문가 2인으로부터 내용타당도를 검증 받아 사용하였다.

2) 사려성 검사(MFFT : Matching Familiar Figures Test)

유아의 사려성을 측정하기 위해 Kagan(1966)이 제작한 MFFT를 실시하였다.

MFFT는 2개의 연습문제와 12개의 본 문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한 개의 표준그림과 여섯 개의 선택그림으로 구성되어 있다. 검사의 진행 방법은 유아에게 표준그림과 선택그림을 동시에 제시한 후 표준그림과 같은 그림을 선택그림 중에서 찾아내도록 한다.

측정은 두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지며 ‘시작’ 신호로부터 정답과 상관없이 첫 반응이 나타날 때까지의 시간인 반응시간을 초단위로 기록하고, 정답을 맞힐 때까지 실수한 횟수인 오류수를 기록한다.

MFFT의 결과는 보통 반응시간과 오류수를 기준으로 빠르고 정확하게 반응하는 효율성 집단, 빠르고 부정확한 충동성 집단, 느리고 정확한 사려성 집단, 느리고 부정확한 비효율성 집단의 4집단으로 구분한다.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사려성을 측정하기 위해 MFFT를 실시하였으므로 반응시간과 오답수의 양 측면을 사려성과 충동성의 기준으로 하여 반응시간이 길고 오답수가 적을수록 사려적인 것으로 평가하였다. 본 검사의 신뢰도는 Spearman-Brown공식에 의한 반분신뢰도가 반응시간은 .88, 오류수는 .79로 나타났다.

<표 3> 그림동화책 선정기준

기준	내용
주제의 적합성	이야기에 포함된 주제가 분명히 드러나며 특히 사려성과 충동성에 대한 내용이 명확히 표현된 책
발달수준의 적합성	이야기의 구성에서 사용된 어휘나 언어표현 등이 유아의 연령, 경험에 적합한 책
구성의 명확성	이야기의 전개가 이해하기 쉬우며 이야기 속에 포함된 갈등이나 감정이 명확하고 분명한 책
문학성 및 예술성	이야기의 내용이 문학적으로 우수하며 그림이 아름답게 표현된 책
다른 활동으로의 연결가능성	극놀이나 토의 등 후속활동에 사용할 수 있도록 단순하고 기억하기 쉬운 줄거리의 책

<표 4> 그림동화책 목록

제목	출처	내용영역
애벌레의 꿈	Sheridan Cain저, 유혜자 역, Koreadewey, 1999	인내심, 성취감
꼬꼬아줌마의 밀농사	이숙원작, 육영사, 1991	사려적 태도, 인내심
까치가 울린 종소리	전경숙, 중앙교연, 2003	사려적 태도, 자기희생
꼬마돼지 삼형제	한국유아교육동화작가회, 도서출판 좋은 친구, 1997	사려적 태도, 과제인내
개미와 베짚이	도서출판 유아나라	사려적 태도, 과제인내
곰보사과	한국행동과학연구소, 웅진출판사	자기통제, 자기희생
낡은 꼬마 자동차	도서출판 유아나라	사려적 태도, 충동억제
행복한 왕자	중앙 교육연구원	자기희생
황금알을 낳는 거위	계림출판사	사려적 태도, 충동억제
콩쥐팍쥐	교연아카데미	인내심, 성취감
외톨이 아기돼지 마리오스	교학사	사려적 태도, 자기통제
단군신화	한국어린이육영회	사려적 태도, 인내심

3. 연구절차

본 연구의 절차는 연구를 하기 전·후에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모든 유아에게 사려성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구체적인 실험 일정은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5> 실험일정표

구분	기간	내용
실험도구의 선정	2004년 9월 1일 - 9월 10일(10일간)	동화 자료의 선정 및 타당도 검증
사전검사기간	2004년 9월 11일- 9월 13일(3일간)	MFFT
실험 처치의 실시	2004년 9월 20일 - 11월 5일(6주간)	동화 들려주기 및 추후 토의 활동
사후검사기간	2004년 11월 9일-11월 11일(3일간)	MFFT

1) 실험도구 선정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동화는 총 12편으로 최윤정과 이기숙(1999)의 그림동화 선정 기준을 참고

로 하여 유치원 교사 6인의 자문을 구하여 수집하였으며 사려성의 주제에 적합한 12편을 최종 선택하여 유아교육전문가 2인으로부터 내용타당도를 검증 받아 사용하였다.

2) 사전 검사

연구에 참여한 모든 유아를 대상으로 MFFT를 실시하여 그 결과가 비슷한 두 집단 A, B를 임의 배분 형식으로 나누었으며 동화 들려주기와 추후 토의 활동을 적용하기 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의 동질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사전검사를 실시하였다.

3) 실험처치의 실시

동화는 그림동화의 형태로 제시하였으며 실험집단의 유아를 대상으로 주당 2편씩 총 6주간 동화 들려주기를 실시하였고 통제집단의 유아들은 같은 시간과 회기 동안 각자의 활동실에서 자유선택놀이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동화 들려주기에 이어 실시된 추후 토의 활동은 동화의 내용 중 사려성-충동성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소집단으로 모여 토의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유아들이 동화에 포함된 내용과 관련된 생활 경험과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발표하도록 하였으며 유아가 주인공이 되어 행동해 보고 느낀 점을 이야기하도록 하였다. 매 회기마다 각각의 그룹에 45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들려준 동화의 목록과 일정 및 매 회기별 진행 순서는 <표 6>, <표 7>과 같다.

<표 6> 동화 들려주기 목록과 일정

동화 제목	회기
에벌레의 꿈, 꼬꼬아줌마의 밀농사	1주
까치가 울린 종소리, 꼬마돼지 삼형제	2주
개미와 베짚이, 곰보사과	3주
낡은 꼬마 자동차, 행복한 왕자	4주
황금알을 낳는 거위, 콩쥐팥쥐	5주
외톨이 아기돼지 마리우스, 단군신화	6주

<표 7> 매 회기별 진행순서

진행 단계	내용	소요 시간
도입	동화의 제목소개 및 동기유발을 위한 질문하기	5분
동화 들려주기	그림동화를 사용한 동화 구연하기	15분
추후 토의	유아의 개인 경험과 느낀 점 발표하기 및 교사의 피드백	20분
마무리	동화의 내용을 확인하고 주제를 강조하는 질문하기	5분

4) 사후 검사

실험처치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사후검사는 실험처치가 끝난 직후인 2004년 11월 9일부터 11월 11일까지 3일간 사전 검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MFFT를 실시하였다.

4. 자료처리

동화 들려주기와 추후 토의 활동을 실시하기 전에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실시한 사전검사를 한글 SPSSWIN Program(version 12.0)을 이용하여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하여 실험집단과 통제 집단간의 동질성을 검증하였다.

그리고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통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검사와 사후검사에서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마지막으로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프로그램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사전검사를 공변인으로 하고 공변량 분석(ANCOVA)를 실시하여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였으며, 공변인에 의한 효과를 제거한 후 조정된 사후검사의 평균으로 집단 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F-test를 실시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동화 들려주기와 추후 토의 활동이 유아의 사려성 증진에 미치는 효과

동화 들려주기와 추후 토의 활동이 유아의 사려성 증진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동화 들려주기와 추후 토의 활동의 실시유무(실험집단, 통제집단)에 따른 MFFT의 반응속도와 오류수의 사전점사와 사후점사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 실험·통제집단 간 MFFT의 반응속도와 오류수 점수의 평균 및 표준편차

변수 집단	반응속도		오류수	
	사전	사후	사전	사후
	M(SD)	M(SD)	M(SD)	M(SD)
실험집단	6.37(2.96)	17.80(5.98)	2.03(.88)	1.00(.60)
통제집단	8.42(4.60)	8.88(4.35)	1.91(.94)	1.68(.84)

<표 8>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통제집단의 경우, 반응속도의 사전(8.42)과 사후점사(8.88)의 점수가 거의 변화가 없었으며 오류수에 있어도 사전점사(1.91)와 사후점사(1.68)의 점수가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실험집단은 반응속도에서 사전점수(6.37)에 비해 사후점수(17.80)가 현저히 높아졌으며 오류수에서는 사전점수(2.03)에 비해 사후점수(1.00)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실험집단의 경우, 과제에 대한 반응 속도는 더 느려지고 오류수는 줄어들어 사려성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동화 들려주기와 추후 토의 활동이 유아들의 사려성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유아의 반응속도와 오류수 점수에 대응되는 사전점사 점수를 공변인으로 하여 공변량분석(ANCOVA)을 실시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표 9> 유아의 사려성의 공변량 분석(사후점사)

종속변인	변산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값
반응 속도	집단간	1111.487	1	1111.487	50.372***
	공변인	253.474	1	253.474	11.487**
	집단내	948.829	43	22.066	
	합계	2115.890	45		
오류수	집단간	6.582	1	6.582	30.493***
	공변인	14.046	1	14.046	65.068***
	집단내	9.282	43	.216	
	합계	28.687	45		

p< .01, *p< .001

<표 9>에 제시된 바와 같이, 유아의 사려성의 모든 하위영역, 즉 반응속도($p < .001$)와 오류수($p < .001$)에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려성의 모든 하위 영역에서 사전검사의 영향력을 배제시킨 상태에서 프로그램을 적용한 실험집단과 적용하지 않은 통제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동화 들려주기와 추후 토의 활동이 유아의 사려성을 향상시키는데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 쓰여진 모든 종속변인에 대해 공변량분석(ANCOVA)을 실시한 결과는 <표 9>에 제시된 바와 같이 모든 하위영역에서 공변인의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공변인에 의한 효과를 제거한 후 조정된 사후 검사의 평균으로 집단 간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F-test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0>과 같다.

<표 10> 공변량분석에 의해 조정된 사후검사 평균의 집단 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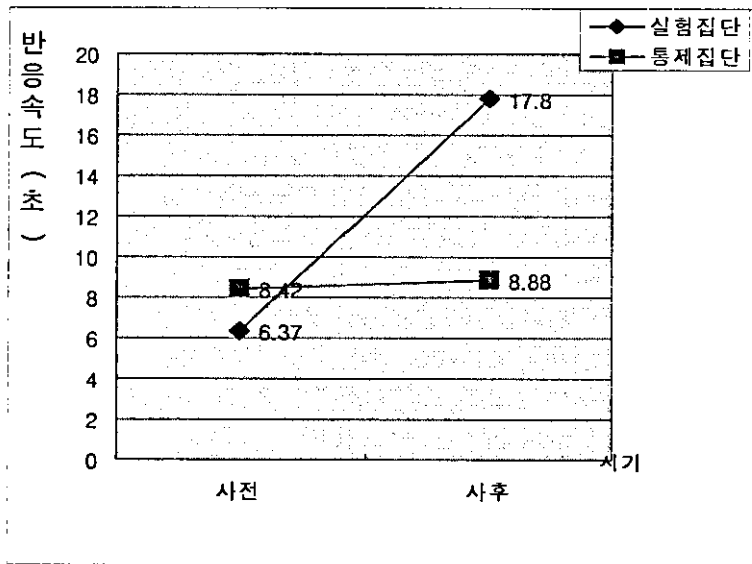
변 인	집 단	평 균	표준오차	F 값
반응속도	실험집단	18.43	1.00	50.372***
	통제집단	8.25	1.00	
오류수	실험집단	.96	.10	30.493***
	통제집단	1.72	.10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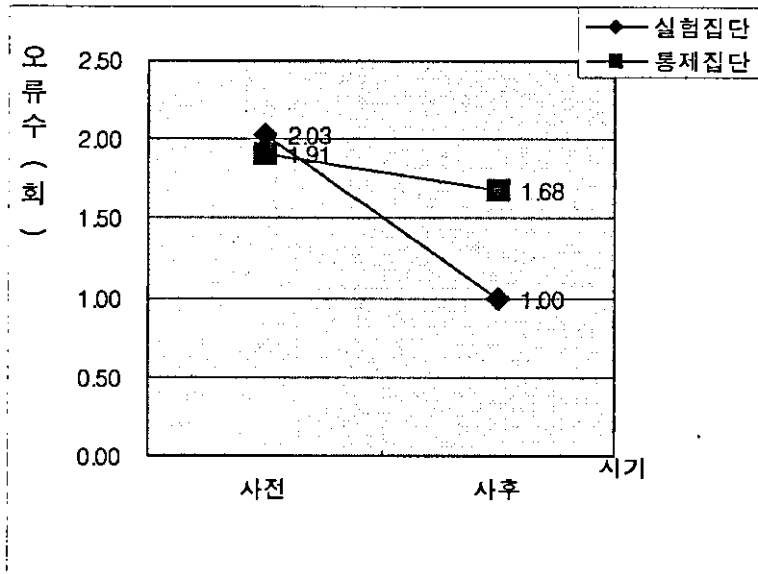
유아를 대상으로 한 동화 들려주기와 추후 토의 활동은 MFFT의 반응속도($p < .001$)와 오류수($p < .001$)에 있어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실험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하여 MFFT에서 과제에 반응하기 전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됨으로써 더 사려적이고 신중하게 반응하게 되었으며, 오류수에 있어서도 실험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해 오류를 범하는 횟수가 적게 나타나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정확성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유아에게 동화를 들려주고 그 내용에 대해 추후 토의하는 활동은 유아의 사려성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동화 들려주기와 추후 토의 활동을 실시하기 전과 실시한 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려성에 대한 각 하위 영역별 평균의 변화량을 살펴본 결과는 <그림 1>, <그림 2>와 같다.

동화 들려주기와 추후 토의 활동이 유아의 사려성에 미치는 효과(김현아·석주영·홍상욱·박인전)



<그림 1> 실험집단과 통제집단간의 반응속도 점수의 변화량



<그림 2> 실험집단과 통제집단간의 오류수 점수의 변화량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동화 들려주기와 추후 토의 활동이 유아의 사려성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유치원에 다니는 만 4-5세 유아 46명을 대상으로 6주간 사려적 태도와 관련된 12편의 동화를 들려주고, 추후 토의하는 과정을 거친 후 사려성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실시되었다. 먼저 본 연구에서 나타난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동화 들려주기와 추후 토의 활동은 유아의 과제 수행에 있어서 반응속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실험집단의 유아들은 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이전보다 더 많은 시간동안 정답 변별을 위하여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다.

둘째, 동화 들려주기와 추후 토의 활동은 유아의 과제 수행에 있어서 오류를 줄이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동화 들려주기와 추후 토의 활동은 유아의 사려성을 증진시키는데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화 들려주기와 추후 토의 활동은 사려성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만 4-5세 유아들에게 사려성과 충동성의 행동양식에 대한 적절한 모델을 제공하는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유아들은 동화를 읽으면서 동화 속 인물이 직면하게 되는 문제에 대하여 실제에서 자신이 문제를 겪게 되는 경우보다 훨씬 더 객관적이고 분석적(한국 어린이 문학 교육학회 독서치료연구회, 2001)이 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다양한 상황에서 타인이 사려적 이거나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간접 경험하게 되고 나아가 유아 자신의 사려성 발달로 이어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결과는 유아들이 이야기를 통하여 간접 경험한 상황을 늘이나 실제 상황에서 통합시킬 수 있으며(Smyth, 1996) 유아들이 타인과의 대화를 통하여 정신적 과정과 기술을 외부의 사회 문화적 환경으로부터 내적인 심리영역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엄정애, 2004)는 주장과도 일치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Berk와 Winsler(1995)는 동화자료의 제시 효과는 Vygotsky가 주장하는 근접발달지대(ZPD)의 개념과 같은 작용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유아가 행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동화의 내용이 하나의 외적 매개체로서 기능하게 되며 모델이 사려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관찰하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유아가 실제 능력 이상으로 사려적인 행동을 수행하게 된다고 보았다. 또한 김경미, 김현주, 송연숙(2002)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한 인지발달은 사회적 또는 개인간 수준에서 먼저 일어나며 그 후에 개인적, 심리적 수준으로 이어진다고

하였다. 즉 모든 고등 정신 기능은 사회적 기원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이 내면화되는 과정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러한 내면화의 과정에서 사회적 경험이 심리적으로 표현되는 것은 언어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주장들은 결국 사려성과 같은 인간의 고등정신 기능이 성인과 상호작용에 의하여 유아에게로 전달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며 아울러 그러한 과정에서 동화 들려주기와 토의와 같은 언어를 매체로 하는 활동들이 효과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한편 동화 들려주기와 추후 토의는 사려적 행동이 발달하기 위한 기초로서 사려성의 인지적 측면인, 충동억제 책략의 형성에도 기여함을 알 수 있다. 즉 유아는 동화에 포함된 주인공의 행동을 관찰함으로써 반응에 앞서 신중히 생각하고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하여 충동성을 억제하는 등의 인지적 책략을 자연스럽게 전달받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는 동화가 유아의 추론능력, 조망수용 등과 같은 인지적 측면의 발달에 효과적이라고 주장한 신현옥(1996), 최윤정과 이기숙(1999), Trepanier와 Romatowski(1981) 등의 연구와 일치하는 것이다.

특히 최윤정과 이기숙(1999)은 동화 들려주기와 토의 방법이 유아의 친사회성의 행동적 측면뿐만 아니라 인지과정인 친사회적 추론에까지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였으며 유희정(2002)은 동화를 통해 유아가 갈등상황에서 문제를 파악하고 대안적 해결책을 모색하며 결과를 예측해보는 과정을 간접 경험할 수 있고 이러한 과정이 갈등해결을 위한 전략을 획득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동화가 유아의 인지발달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일치되는 의견을 보인 것으로서 동화 들려주기와 추후 토의 활동을 통해 유아의 사려성이 증진되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와도 일치되는 점이 있다고 생각된다.

이상의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동화 속 등장인물들의 행동은 유아에게 바람직하고 적절한 행동의 모델로서 유아가 바람직한 행동을 모방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동의 저변에 포함된 동기와 타당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인지적 측면의 효과도 동시에 가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동화 들려주기와 추후 토의 활동을 통해 유아들은 이야기 속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이 인내심이나 충동억제와 같은 사려적 행동을 보이는 것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고 이러한 사려적 행동을 위한 다양한 책략과 사려적 행동이 가져오는 결과에 대한 이해도 가능하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자료 수집과정에서 여러 편의 동화를 수집, 검토하였으나 사려성의 주제를 담고 있는 동화는 많이 부족한 실정이었다. 그러므로 유아의 사려성 및 인지·사회발달에 관련된 다양한 동화 자료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MFFT의 경우 Kagan이 1966년에 개발한 방법으로서 문화적 차이에 따른 이질감이 거의 없는 도형 검사이지만 검사의 한 항목인 카우보이와 같은 그림은 현재의 유

아들에게는 생소한 내용이라고 판단되었다. 그러므로 유아의 사려성을 측정하기 위한 현대화된 표준화 검사 방법의 개발이 요구된다.

결론적으로, 유아의 사려성을 향상시킴에 있어서 먼저 주제와 관련된 동화를 들려주고 이러한 간접 경험을 유아의 일상생활과 연결하도록 해주는 추후 토의 활동은 유아의 사려성 증진에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유아에게 발달적으로 적합한 접근방법으로서 보다 다양한 내용과 형식의 동화 자료를 활용하고 후속적으로 유아와 토의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은 유아의 사려성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기숙, 이경님(2001).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사려성이 유아의 자기통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12(4), 115-132.
- 김경미, 김현주, 송연숙(2002). *현장중심 유아과학교육*. 서울: 창지사.
- 민옥진, 이운경(2001). 동화 내용에 대한 교사와 유아의 토의활동이 유아의 문제 발달에 미치는 효과. *아동학회지*, 22(1), 163-175.
- 서영숙, 이재연, 성영혜, 김광웅(1993). *아동교육심리*. 숙명여자대학교 출판부.
- 신현옥(1996). 자신과 타인 이해 활동이 유아의 자아개념, 조망수용 및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엄정애(2004). 유아의 충동성 기질 및 사회극놀이 참여도와 자기규제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5(5), 41-58.
- 유희정(2002). 동화를 활용한 갈등해결 교수전략이 3세 유아의 또래 간 갈등양상에 미치는 영향.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경님(2001). 아동의 자기통제와 관련변인간의 인과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9(2), 46-68.
- 이미라(1999). 아동의 인지양식 및 어머니 양육행동과 아동의 욕구충족 지연행동 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은지(1998). 유아의 인지양식과 자아개념 및 문제해결력과의 관계. *아동교육학회지*, 7(2), 68-79.
- 최윤정, 이기숙(1999). 그림동화책 읽어주기와 토의가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및 추론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0(3), 275-291
- 한국 어린이 문학교육학회 독서치료연구회(2001). *독서치료*. 서울: 학지사.
- 허수경, 이경님(1996). 인지양식 유형과 보상의 제시형태에 따른 아동의 만족지연능력 발달. *아동학회지*, 17(2), 221-233.
- Berk, L. E., & Winsler, A. (1995). *Scaffolding*. Washington, DC: NAEYC.
- Carlson, C. L., Lahey, B. B., Frame, C., Walker, J., & Hyand, G.(1987). Sociometric status of clinic-referred children with attention deficit disorders with and without hyperactivity.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5, 537-547.
- Hodges, J. (1995). *Conflict Resolution for the Young Child*. ERIC Document No. ED 394 624.
- Kagan, J. (1966). Reflection-impulsivity: The generality and dynamics of conceptual tempo.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71, 12-24.
- Kagan, J., Moss, H. A., & Siegel, I. E. (1963). Psychological Significance of Styles and Conceptualization. In J. C. Wright and J. Kagan, eds., *Basic Cognitive Processes in Children.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28, (2, Serial No. 86), 73-112.
- Kanfer, F. H., Karoly, P. (1972). Self-control : A Behavioristic exclusion into the lion's den. *Behavior Therapy*, 3, 398-416.

- Kendall P. C., & Braswell, L. (1982). Cognitive-behavioral self-control therapy for children : a component analysi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0, 627-589.
- Kendall, P. C. & Wilcox, L. E. (1979). Self-control in children : Development of a rating scal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7, 1020-1029.
- Kopp, C. B.(1982). The antecedents of self-regulation: A developmental perspective. *Developmental Psychology*, 47(6), 1020-1029.
- Lipscomb, T. J., Larrieu, J. A., McAllister, H. A., & Bregman, N. J. (1982). Modeling and Children's Generosity : A developmental perspective. *Merrill-Palmer Quarterly*, 28(2), 275-282.
- Maccoby, E. E. (1980). Social Development : Psychological growth and the parent, child relationship. N.Y. : Harcourt Brace Jovanovice.
- McMath, J. S. (1989). Promoting prosocial behaviors through literature. *Day Care and Early Education*, 17, 25-27.
- Messer, S. B. (1976). Reflection-impulsivity : A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83, 1026-1052.
- Smyth, J. (1996). Let's Tell Stories : *Sharing stories with young children*. AECE Resource Book Series, 3(3), ERIC Document No. ED 402 054.
- Trepanier, M. L., & Romatpwski, J. A. (1981). Classroom use of selected children's books to children. ERIC Document No. ED 208 967.